

農藥부작용 최소화가 최대과제입니다.

■ 편집부

●올해로 한국환경농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학회의 창립목적과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지요

-예, 저희 학회는 농림수산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학술발달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81년 3월에 발족했습니다.

사실 농림수산환경의 보전이라면 그 범위가 넓지요.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물론 폐기물로 인한 오염 등도 포함되니까요. 이에 따라 회원들도 농화학전공자를 비롯해 전 농업분야가 망라돼 있지요.

●회장님께서 농약전문가이신데요,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농약의 피해는 즉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잔류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그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하겠는데요.

-농약은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과 농업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40~50년전엔 잔류성 유기염소제등이 만성중독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등 큰 문제를 야기한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이들 농약은 이미 등록취소나 판매가 금지됐고, 신규등록때엔 의약품 규제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돼 있기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과거 21년간에 걸쳐 국내에서 행해진 농약의 잔류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유기염소계 농약사용금지 이후부터 토양, 하천, 농산물중의 잔류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산물중 잔류량은 FAO,WHO에서 권장한 잔류허용치이하라

는 점과 토양중에 잔류량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전량 농작물에 흡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지적하신것 처럼 국민들의 농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농약의 잔류량과 그 동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제시할 만한 충분한자료가 축적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조사가 어느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대학, 지방단위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의 수행을 위해선 시설, 인력, 예산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방금 국민들의 과민반응을 지적하셨지만, 농약을 계속 사용하다보면 농작물에 저항성이 생겨 점차 그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오염과 그외의 원인으로 인한 오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라국민들의오해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령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을 경우 농약으로 인한 인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5대강 하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수치사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현재와 같이 농약과 일반오염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요인에서 오는 오염원을 농약쪽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점을 비롯해 농약공해와 관련된 사건을 과학적인 근거없이 대서특필하는 매스컴의 자세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성문제 역시, 농약의 과량사용방지를 위해 동일농약의 연용을 피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잔류량 이하만 쓰면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작물생산은 물론 UR협정등 국제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면서 소출을 높여야 하므로 농약사용은 불가결합니다.

분명한것은 잔류허용량이하가 되기위해 적용작물, 사용회수 등을 기록, 작성한 안전사용기준만 제대로 지켜지면 그 문제는 심각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저명한 학자들도 현재 등록사용중인 농약이라면 극미량 섭취량에 의한 발암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흡연, 일반식품등의 위해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학회의 활동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학회의 주요행사로는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들수 있죠. 이번 심포지움은 「농업환경의 오염현황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학회지에 게재했던 총설을 단행본으로 제작도 하고요.

현재는 벤타존의 지하수 오염 문제, EDBC / ETU 등의 과실 및 과채류에 대한 잔류량 조사용역을 의뢰받고 수행중에 있습니다.

농업환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니만큼 어떻게 하면 농약의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사용, 농업생산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계몽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까요?

*** 한국환경농학회 ***

● **창립년도 : 1981. 3**

● **학회입원명단**

회 장 양환승(전북대 농과대학)

부회장 박창규(서울대 >)

박영선(농약연구소)

박상근(원예시험장)

손태화(경북대 농과대학)

이서래(이화여대 가정대학)

한대성(강원대 농과대학)

간 사 한강완(전북대 >)

임수길(고려대 >)

박우철(경북대 >)

● **정기활동내역**

학회지 발행 : 년 2회, 학회 및 심포지움

● **회원수 : 400명**

● **연락처 : 전주시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 농과대학 농약연구소

전화 / (0652) 70-2543